

뉴스 정보 구조의 비교를 통한

효과적인 다매체 뉴스 그래픽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안

Proposal of a Guideline for Effective Multimedia News Graphics through Comparison of the News Information Architecture

최지원*, 윤주현**

요약 뉴스는 언론매체를 통해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어 광범위한 분야에서 다른 형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며 사용자와 소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대한 뉴스 데이터를 매체의 특성에 맞게 조직화된 정보로서 효율적으로 '디자인' 되어야 할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외 뉴스의 분석으로 장단점과 전략을 파악한 결과, 뉴스의 정체성과 일관성 그리고 접근성이 쉽고 편리한 뉴스읽기에 필요한 중요 요소였다. 국내 뉴스그래픽의 가이드라인은 1)아이덴티티 시스템의 정립 2)카테고리의 명료한 분류 3)테마별 기사의 공간 구분 4)일관성있는 그래픽 요소의 적용 5)사진과 영상을 통한 적절한 강조 6)크기와 색으로 정보의 위계질서 표현 7)SNS, 댓글의 메뉴 혁신 등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로써 뉴스그래픽의 수준을 높이고 효과적인 정보디자인설계로 사용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이룰 수 있다.

Abstract News, conveyed through diverse mediums, performs communication in various areas. Accordingly, the necessity is growing to "design" the vast volume of news data efficiently as the information organized to reflect the unique characteristic of the mediums. By analyzing foreign news case studies and thereby establishing pros/cons and strategies, important elements are identity, consistency and legibility. Domestic news graphic guidelines can be 1)Establishment of the identity system 2)Classification of categories 3)Space separation of the article in themes 4)Application of coherent graphic elements 5)Appropriate emphasis by using photo and video 6)Expression of the information with hierarchy by size and color 7)Design innovation of SNS and comments. Consequently, the guideline's aim is to raise the quality of news graphic and promote productive communication with the users by effective Information architecture.

핵심어: News, Digital Media, Information Architecture, Interface

*주저자 :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과 석사과정 e-mail: jchoi233@snu.ac.kr

**교신저자 :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미디어디자인전공 교수 e-mail: jheune@snu.ac.kr

1. 서론

1.1 연구배경

뉴미디어시대가 도래하면서 뉴스는 아날로그와 오프라인 형식의 신문부터 디지털과 온라인 형식의 웹, 방송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의 언론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리차드 솔 위먼(Richard Saul Wurman, 1989)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대부분은 정보가 아니고 데이터에 불과하므로 이를 가치 있게 하려면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하고 조직화하여 변화시켜 제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뉴스는 방대한 데이터를 조직화하여 '정보'를 편리하고 쉽게 보여주어야 하며, 이에 따라 효율적인 정보 전달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디자인 체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매체의 특성에 맞게

정보를 조직화하고 구성하여 쉽고 편리한 뉴스 읽기를 도와주는 뉴스 정보 그래픽은 사용자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생성하며 효과적인 정보 습득과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 낸다.

1.2 연구목적 및 방법

한국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신문부터 방송까지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며 발전하고 있는 사례이지만, 디지털 신문으로서 명확한 아이덴티티의 부재와 이용자에게 보여지는 정보전달 방법과 디자인 구조는 개선되고 발전해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외의 신문과 방송은 어떠한 방식으로 정보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비교 분석하여 국내 신문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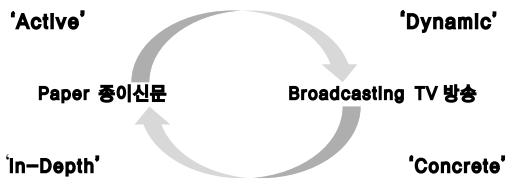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뉴스 그래픽의 디자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외의 신문과 방송의 정보 구조와 뉴스 그래픽의 심층적인 분석과 설문조사로 선호도를 평가하고 발전 단계별 전략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특히 웹사이트, 모바일, 태블릿 PC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의 차이와 장단점을 파악한다. 국내의 신문방송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분석한 후,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방향을 찾고 국외 조사로 얻은 디자인 데이터 베이스를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과 개별 전략을 연구한다.

2. 배경연구

뉴스 정보 디자인은 색, 크기, 위치, 방향, 형태, 시간, 카테고리, 문자 등에 의해 시각적으로 표현되며 명확하고 쉬운 구분과 위계가 있는 정보의 배열이 이용자에게 쉽고 편리한 정보의 습득을 가능하게 한다. 미국의 뉴욕타임즈와 영국의 가디언지는 뉴스 정보의 범위가 신문에서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까지 확장되었고, 미국의 CNN 과 영국의 BBC 는 방송에서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까지 확장되었다. 뉴스의 정보 구조는 종이 신문에서 방송으로 발전하기 위해 능동적이고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방송에서 종이 신문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깊고 구체적으로 정보 구조가 변화하게 된다.

〈표 1 정보 구조의 변화〉



신문에서 방송으로 정보는 능동적,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방송에서 신문으로 정보는 깊고 구체적으로 변화한다. 이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자유로운 연동이 가능한 뉴스 그래픽은 그 경계를 넘나들며 보여주는 다면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웹과 어플리케이션의 상호소통의 관점에서 매체의 특성과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제작한다.

〈표 2 뉴스정보의 확장〉

		Paper	Web/Apps	Broadcasting
신문사	NYT, Guardian		→	
방송사	CNN, BBC		←	
신문 방송사	조선, 중앙, 동아 일보			→ TV 조선, JTBC, 채널 A

3. 사례연구

미국과 영국의 대표적인 일간지 신문과 방송을 선정하여 뉴스 정보가 매체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보여지고 있는지 조사해보았다.

〈표 3 디지털 뉴스 디자인 분석 요인〉

Website	Mobile Apps	Tablet PC Apps
Design		Content
Layout, Logo System, Color, Info graphic, Typography		Category, Contents, Photo, Video, SNS, Comments, Ads

3.1 New York Times 와 The Guardian

〈표 4 NYT 와 Guardian 비교〉

	Paper	Website	Mobile	Tablet PC
NYT (U.S.)				
Guardian (U.K.)				

뉴욕타임즈와 가디언지 모두 디자인의 완성도와 콘텐츠의 접근성 등의 여러 세부 항목에서 Mobile Apps < Website < Tablet PC Apps 순으로 태블릿 PC 의 어플리케이션이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가디언지가 뉴욕타임즈보다 정보구성도 디자인이 잘 되어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뉴욕타임즈는 신문과 유사한 형식으로 웹이미지를 구축하여 신문에 익숙한 독자들이 웹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느끼는 이질감을 최소화하여 웹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지만 신문처럼 빠르게 적힌 글과 많은 요소들의 혼재로 몰입이 방해되는 단점이 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성격이 바뀌었지만 기본적인 틀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디지털 매체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였다. 반면에, 가디언지는 신문과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구조로 웹을 구축하고 색선별 분명한 구분으로 정보의 읽기가 편리하였다. 적절한 그래픽 요소로 사진과 영상의 활용이 돋보였다. 정보 보여주기엔 있어서 체계적인 구조화의 과정이 웹에서는 중요하다. 웹에서는 시선의 흐름이 좌에서 우로 진행되는 성향보다 상하좌우 지점에서 지점에서의 이동이 자유롭게 때문에 이러한 과감한 읽기로 정보가 선택되는 경향이 크다. 그래서 명확하고 쉬운 구조로 '편리하고 쉬운 정보 읽기' 를 도와주어야 한다.

3.2 CNN 과 BBC

〈표 5 CNN 과 BBC 비교〉

	Website	Mobile	Tablet PC	Broadcasting
CNN (U.S.)				
BBC (U.K.)				

정보구조와 디자인의 평가에서 CNN 은 Website < Mobile Apps < Tablet PC Apps, BBC는 Mobile Apps = Tablet PC Apps < Website 라는 결과를 얻었다. 종합적으로 웹사이트는 CNN < BBC, 어플리케이션은 BBC < CNN 이 뛰어난을 알 수 있었다.

CNN 은 태블릿 PC Apps 에서 확실한 CNN 의 색과 컨셉을 전달하며 일관성있는 디자인과 세련된 메뉴의 구성으로 웹사이트와 모바일 Apps 보다 뛰어난 평가를 받았다. 웹과 차별화된 구성으로 스마트패드의 장점을 잘 활용하였고, 사진위주의 보여주기로 한 눈에 다양한 뉴스 정보의 빠른 읽기가 쉽다. SNS 와의 연동과 댓글의 참여가 쉽고 간단한 인터페이스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들의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아이콘의 완성도와 디테일이 뛰어나 다른 뉴스와는 다른 격이 느껴지는 세련된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BBC 는 어플리케이션은 비슷한 구조로 단순하게 정보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웹사이트에서 명확한 정보 분류와 공간 구성으로 이용자들이 만족감을 나타냈다. 타이틀의 크기와 색의 변화가 뚜렷하여 가독성이 좋아 뉴스 그래픽의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었다. 선별적 중요 정보를 채택하여 정보 위계를 명확히 하여 단순하게 구성한 방법이 읽기가 더욱 쉽고 편리했다.

3.3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표 6 조선, 중앙, 동아 신문부터 방송까지의 비교〉

	Paper	Web	Apps	Broadcasting
조선				
중앙				
동아				

국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 평가에서 국외보다 낮은 만족도와 효용성을 나타냈다. 조선일보는 웹과 앱, TV 조선에서 통일된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며 정보의 신뢰성과 몰입을 높여주고 있지만,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웹에서 주황색의 동일한 계열의 색을 사용하며 TV 방송인 JTBC 와 채널 A 와 자연스러운 이미지의 연결이 되지 않고 지나치게 많은 광고로 정확한 정보 읽기가 어렵다. 하지만 정보의 분류와 구성에 있어서는 조선일보가 가독성이 떨어지고 동아일보가 가장 명확하게 간격을 두고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기사의 하단에 SNS 연동 아이콘과 댓글이 광고들로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아쉬운 점이었다.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디자인의 완성도가 떨어지고 사용상의 정보 읽기에 불편함이 있었다. 신문에서 구축한 브랜드 이미지 파워가 디지털 매체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못하고 저급하고 색깔 없는 디자인으로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4. 결론

쉽고 편리한 뉴스 읽기를 도와주는 요소로 뉴스매체의 고유 정체성과 일관성 그리고 접근성이 중요하다. 국내 신문방송 동아일보의 가장 시급한 것은 1)일관되며 통일성 있는 아이덴티티 시스템을 웹과 어플리케이션에 정립하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빨강색, 중앙일보는 주황색, 동아일보는 파랑색으로 컬러를 차별화한다. 2)카테고리를 효율적으로 분류하여 쉽고 빠르게 정보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환경을 위한 디자인으로 현재 상단의 메뉴의 위치는 유지되되, 크기를 키우고 중앙정렬로 접근성을 높인다. 3)기사의 나열이 테마 별로 나뉘어져 공간이 구분되어야 한다. 박스나 라인의 그래픽 요소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활용하여 정리가 잘 되어있어야 한다. 4)사진과 영상으로 중요한 기사나 이슈는 강조하면서 정보의 위계질서가 분명하게 잡혀야 한다. 5)이용자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SNS 와 댓글을 기사 바로 하단부에 바로 보일 수 있는 위치에 놓고 완성도 높은 아이콘과 세부 항목들로 접근하기 쉽고 편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사용성을 높여야 한다. 완성도 있는 디자인을 통해 뉴스정보를 호기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볼 수 있는 인터페이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국내 동아일보를 위한 새로운 디자인 가이드 라인은 정체성, 가독성, 사용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변화한 디자인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가독성이 증가하고 클릭수가 감소되어 효율적인 시간의 사용으로 더욱 빠르고 직관적인 뉴스정보탐색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를 얻었다.

참고문헌

[1]Ronnie Lipton, "The Practical Guide Information Design", Wiley, 2007
 [2]Richard Saul Wurman, "Information Architecture", Graphics Press Corp, 1996
 [3]Richard Saul Wurman, "Information Anxiety 2", Que, 2001, pp.40-45
 [4]Louis Rosenfeld & Peter Morville, "Information Architecture for the World Wide Web", O'Reilly, 1998, p10
 [5]James G. Stovall, "Infographics: A Journalist's Guide", Allyn and Bacon, 1997